

“더 큰 장흥·더 행복한 장흥 만들 것”

장흥군수 사순문

장흥군수에 당선된 사순문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돼 더 큰 장흥, 더 행복한 장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사순문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며 “변화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승리이자 더 나은 장흥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고 함께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 당선인은 선거 이후 군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저를 지지한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소중한 장흥군민”이라며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장흥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군민 모두가 함께



사순문 장흥군수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후보 승리…“군민이 주인인 장흥 약속”

하는 군정을 펼치고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군민이 주인인 장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장흥군의 정치 지형 변화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남겼다.

장흥 출신인 사 당선인은 전남도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다시 도전해 현직 군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흥=정영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지역 성장동력 활용 새도약 이끌겠다”

강진군수 강진원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진원 후보가 승리하며 민선 9기 제46대 강진군수에 당선됐다. 이로써 강 당선인은 제42·43대, 제45대에 이어 네 번째 군정 운영을 맡게 됐다.

강 당선인은 3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는 강진원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강진군민의 승리”라며 “군수는 정당이나 군민의 손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뜻이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겼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은 “높은 투표율은 군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군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 강진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강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강진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해선 철도 강진역 개통과 강진



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이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가족, 유권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철도·고속도로…반드시 기회 살릴 것”

~광주 고속도로 개통,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적극 활용해 강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접근성 향상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화해와 통합의 시간”이라며 “지지 여부를 떠나 모든 군민이 강진 발전의 동반자다. 힘을 모아 새로운 강진시대를 함께 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대전환 무안 시대…성파로 반드시 보답”

무안군수 김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직 군민과 함께 대전환 무안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다시 한 번 군정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무안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선택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과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체감형 민생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힘, 그리고 3선 군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무안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이 경쟁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 확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선 성공…RE100 국가산업단지·기본소득 추진

“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광주 공공화물 터미널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안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군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묵은 현안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무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군민 행복 최우선…지방소멸 위기 극복”

함평군수 이남오

이남오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당선인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함평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제49대 함평군수로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기쁨보다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한다”며 “오직 함평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든 후보들이 함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선거는 끝났지만 함평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이제는 승자와 패자로나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이 군수에 당선된 후 지지자들의 환호속에 만세를 외치고 있다.

농업·지역경제 활성화·청년 정착 기반 구축 다짐

뉘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지지해 주신 군민뿐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신 군민들까지 모두 함평의 주인”이라며 “모든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돼 군민 통합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농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 아이 키우기 좋은 함평, 어르신들이 행복한 함평을 만들겠다”며 “생신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함평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공약 실천으로 군민 행복시대 완성”

진도군수 이재각

진도군수에 당선된 이재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새로운 진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진도 발전을 염원한 군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펼치겠다”며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이 김희수 후보를 꺾고 당선되자, 가족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현직 군수 꺾고 승리…더불어민주당 탈환 성공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진도의 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군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더 활력 있는 진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갈등 넘어 하나 된 신안 건설에 매진”

신안군수 김태성

신안군수에 당선된 김태성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는 위대한 신안군민의 승리이자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승리”라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선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안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함께하는 군수’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군민 주인 시대를 열고 하나 된 신안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운영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선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변화의 요구를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과 지지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새로운 신안 건설 매진을 약속하고 있다.

‘함께하는 군수’ 약속 실천…“군민과 함께 군정 운영”

군정 전반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대립, 증오와 미움은 이제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제는 오직 신안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신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거리와

마를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군민들의 표정이 더욱 밝아지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행정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을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